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18. 7. 5. / (총 3매)	담당부서	아동복지정책과
과 장	유 주 현	전 화	044-202-3410
담 당 자	권 고 운		044-202-3424
	김 지 혜		044-202-3829

아동수당 사전신청,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7월 6일(금)~7월 22일(일)까지 「아동수당 사전신청 공모전」 개최
-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총 150명에게 1만 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 지급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6일(금)부터 7월22일(일)까지 17일 간 「아동수당 사전 신청 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전은 아동수당 사전 신청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전신청 과정에서 느낀 점(신청소감, 좋았던 점이나 불편한 점 등) 등을 바탕으로 향후 제도 개선 등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된다.
- 아동수당을 신청한 국민(온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신청 후 참여 가능

□ 참여방법은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 방문 후 이벤트 참여 게시판을 통해 아동수당 신청 시 좋았던 점과 불편했던 점, 사용계획 등(200자~500자)을 작성하면 된다.

- 참여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150명을 선발하여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당첨자 발표는 8월 14일 아동수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당첨자 발표 일정 변경 가능)

□ 한편, 7월 4일(수) 기준 총 152만 명의 아동(120만가구)이 아동수당을 신청(신청 진행 포함)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이중 42만 1000명(30만7000가구)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110만 4000명(87만3000가구)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였다.

< 참고 > 아동수당 신청 현황('18년 7월 4일(수). 18:00 기준)

(단위) 건, 명

가구 수 (아동 수)	합 계	신청 진행*	신청 완료	접수 완료
소 계	1,200,581 (1,525,901)	342,586 (426,143)	105,311 (134,284)	752,684 (965,474)
방문	327,291 (421,083)	- (-)	68,042 (86,842)	259,249 (334,241)
온라인	873,290 (1,104,818)	342,586 (426,143)	37,269 (47,442)	493,435 (631,233)

* 복지로 온라인 신청진행 과정으로 ▲신청서 작성 중, ▲부모 중 1인만 금융 재산 조회동의 완료, ▲복지로 → 행복e음 전송 단계 포함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부모 모두의 서명이 필요하므로,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미리 작성해가는 것이 편리하다.

- 온라인을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 보건복지부 유주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실제 신청 과정에서의 편리 했던 점과 불편, 개선 사항 등을 수렴하여 향후 제도 개선 등에 활용하겠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아동수당을 신청해 제도의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 붙임 1. 아동수당 사전신청 사례 공모전 계획(안)

붙임 아동수당 사전신청 사례 공모전 계획(안)

□ 행사 목적

- 아동수당 사전 신청에 관한 대국민 관심 유도
- 실제 신청 과정에서의 편리했던 점과 불편·개선사항 등을 수렴하여 향후 제도 개선 등에 활용

□ 행사 개요

- **참여대상** : 아동수당을 이미 신청한 국민(온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신청 후 참여 가능
- **공모내용** : 사전 신청 시 좋았던 점과 불편했던 점, 사용 계획 등
- **참여방법** :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 방문 후 이벤트 참여 게시판을 통해 참여 가능
- **진행기간** : 7월 6일(금) ~ 7월 22일(일)

□ 결과 발표·활용 : '18년 8월 14일(화) 예정(아동수당 홈페이지 별도 게재 예정)

- 참여자 중 **150명** 선발(무작위), 1만 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 증정(MMS 통해 핸드폰으로 모바일 상품권 전송)
- 공모전을 통해 수집된 사례는 향후 제도 개선 등에 활용 예정